

도청앞 집단발포·헬기사격 등 동영상 원본 존재 가능성



5월21일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한 금남로에서 전옥주씨가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날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



5월의 주검들이 80년 5월30일 트럭 짐칸에 실려 안장을 위해 북구 망월동 구묘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영상 촬영=최현배기자 choi>

38년만에 모습 드러낸 5·18기록 영상물 무슨 내용 담겼나

21일 집단발포 직전 상황

망월묘지 유족 통곡 영상 생생

촬영 누가 했나 관심 증폭

한 장의 사진으로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5·18 꼬마상주', 계엄군의 집단 발포 당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 망월동으로 옮겨지는 희생자 주검, 대로에서 주먹밥을 나누는 시민들...

사진으로만 전해졌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모습을 담은 생생한 영상이 38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익명의 수집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입수, 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상영한 것이다. 72분짜리 흑백 영상은 아쉽게도 음성은 지원되지 않는다.

영상은 1980년 5월 21일 낮 광주 금남로를 비추며 시작된다. 소총을 맨 공수부대 장병과 수천명의 시위 군중이 대치하고 둘의 경계에 한 여성이 확성기를 들고 서 있다. 군중을 향한 여성의 애절한 몸짓은 화면을 뚫고 금방이라도 꺾전을 때릴 듯하다. 영상을 공개한 5·18기록관 측은 이 여성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이 연기한 '신애'의 실존인물 전옥주씨라고 소개했다.

카메라는 이어 적십자병원, 전대병원 영안실을 비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자행된 5월 21일 오후다. 천막이나 이불에

싸여 싸늘한 바닥에 누워있는 주검들 앞에서 영영 우는 유족이 보인다. 영상을 보는 이가 장소를 떠올리지 못할까봐 걱정할 것인지를 건물 현판 모습도 담았다.

시내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젊은 이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미 알려진 기존 영상과 달리 이번 영상에서 군인들은 시민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는다.

익명의 촬영자가 자유롭게 시민군과 계엄군 진영을 넘나들며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의 광주를 날 것 그대로 담아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도 있으나 집단발포 순간, 헬기사격, 시민학살 내지 구타 장면 등 군의 잔혹한 모습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5·18의 진실이 담긴 원본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촬영 구도, 수준, 기법 등을 고려할 때 군 기록물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상을 공개한 5·18기록관 측은 사료적 가치가 높아 익명의 수집가에게서 구매했을 뿐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는 모습도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길 한가운데서 밥을 짓고 무장한 시민군들이 차에 내리지 않고 시민들이 건네는 주먹밥과 물을 받아먹는 모습이다. 계엄당국은 광주를 가리켜 폭도의 도시로 낙인찍었지만, 주먹밥을 나누는 영상 속 시민들의 표정은 밝지만 하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장성급 지휘관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이른바 도청진압작전 다음날인 27,28일(추정) 검은 양복을 입고 전남도청을 찾은 주영복 당시 국



장형태 전남도지사가 1980년 5월27일 시민수습위원 등과 면담한 후 김여송 광주일보 기자(현 사장·오른쪽) 등 취재진에게 면담내용과 향후 수습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방장관과 소준열 전교사령관(전남북 계엄분소장) 등이다. 시위 진압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윤홍정 전임 사령관 이후 신군부 핵심에 의해 광주로 급파된 소 사령관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만족감에서 인지, 활짝 웃으며 등장했다. 소 사령관 바로 옆에는 철모를 쓴 인물 역시 개신장군인 양 자신에 찬 모습이다. 5·18기록관은 "철모를 쓰고 소 사령관과 마주한 군인에 대해 '철모와 머리카락 등에 미뤄 육군 제20사단장 박준병 소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 소장은 한차례 일원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진압에도 투입된 신군부 핵심이다.

광주로 모여든 외신기자와 통역사 등 진실을 기록하고 노력했던 이방인의 모습도 등장한다. 사진으로만 접했던 5월 30일 망

월동 묘지 상황도 살아 움직이는 영상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짐짝처럼 5~8개씩 무더기로 관을 실은 트럭이 망월동으로 오자 정체를 몰던 청년들이 관을 내린다. 소리없는 영상이지만 상복을 입은 아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상복 처리의 여성들의 흐느낌이 망월동을 가득 채웠다.

한편 5·18기록관은 공개 상영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시민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5·18기록관 3D 영상실(3층)에서 영상물을 공개 상영한다. 구체적인 상영시간은 5·18기록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5·18기록관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물과 관련해 자료에 대한 정보, 영상물에 나오는 인물·장소 등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전화 062-613-8202, 8287.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상적인 남성 육체미, 작품이 되다



(224) 남성누드

최근 한 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누드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사건을 접했다. 모델과 화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듯하여 여러모로 씁쓸했다.

서양미술사에서 누드 미술의 기원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미술에서 남성누드가 발전하면서 서양미술의 주요 소재가 되어왔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에서는 '미남선발대회'가 있었고 이 대회에서 남성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육체미였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선수가 훈련하는 시설이나 사교장이었던 김나시온(gymnasion)은 '사람들이 나체로 다니는 장소'를 뜻했다.

BC 5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그리스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는 미론처럼 운동 경기의 승리자나 미남선발대회 우승자의 인체를 조각해 명성을 얻었고, 이상적인 인체비례의 기준을 마련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

함으로써 남성누드미술의 전통이 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신교전주의 대표적인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1748~1825)는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 가운데 작품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1814년 작)는 BC 480년 페르시아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하자 레오니다스왕이 진두지휘하는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군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관문인 테르모필레 협곡을 사수하다 전원이 장렬히 전사한 역사를 묘사한 그림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10여 년 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300'이 상영되기도 했는데 영화에서는 스파르타 결사대 300명이 근육질의 남성미를 뽐내면서 거의 나체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 다비드의 그림과 겹쳐져 인상적이었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